

아이디어는 있는데, 만들 사람이 없을 때.

Slipway는 초기·학생 창업팀의 제품을 실무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, 출시와 그 이후 운영까지 함께하는 작은 스튜디오입니다. 외주처럼 넘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, 팀이 자립할 때까지 같이 갑니다.

무엇을 하나요

제품 개발 — 앱·웹·서버·AI/RAG·하드웨어·임베디드, MVP부터 출시까지

출시 · 인프라 — 앱스토어 등록, 서버·배포 세팅

운영 · 성장 — 출시 후 유지보수와 개선

채용 컨설팅 — 직접 개발자를 뽑을 때의 길잡이

어떻게 진행하나요

- 01**
범위와 비용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합의합니다.
- 02**
격주 데모로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며 만듭니다.
- 03**
소스코드·계정을 전부 인계합니다. 종속은 없습니다.

이런 팀에 맞아요

잘 맞는 경우

지원금은 받았는데 만들 사람이 없는 팀 · 비개발 창업자 · 외주가 막막한 팀 · 현금이 빠듯한 팀(용역비 일부를 지분이나 추후 매출 수수료로 나눌 수 있어요)

잘 안 맞는 경우

이미 자체 개발팀이 있는 곳 · 단발성 소규모 수정만 필요한 경우. 솔직히 이럴 땐 다른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.

지금까지

16개+ 출시 제품

5개 도메인 (커머스·결제·키오스크·AI·소셜)

NIA 웹접근성 인증

네이버·한국경제 보도

실제 사례는 slipway.kr 에서 볼 수 있어요.

만들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 (꼭 우리와 안 해도)

- 지원금의 외주용역비만으로는 풀 빌드가 빠듯할 수 있어요. 범위를 좁혀 핵심부터 검증하세요.
- 소스코드와 앱스토어 계정은 꼭 본인(팀) 명의로 받으세요. 나중에 다른 팀이 이어받을 수 있게.
- 출시보다 그다음(운영·인계·유지보수)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.

수업 프로젝트나 창업팀에서 만들 게 있다면, 궁금한 점은 부담 없이 물어봐 주세요.

Slipway — 스타트업의 조선포

hello@slipway.kr · slipway.kr